중국, 폴리머 수요 "호조-비관" 팽팽

GDP성장률 7% 달성이 결정 … Dow는 긍정적으로 평가 투자확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중동의 증설분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폴리머 수요가 증가할지 관심이 되고 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의 GDP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진다면 중국의 폴리머 수요 및 수입 신장률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GDP 성장률이 정부의 기대치에 도달한다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공급과잉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Dow는 중국수출이 단기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의 에틸렌 크래커 및 유도제품 플랜트 대부분은 2002년 3-4월 매우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PE 수출은 북미 생산기업들이 떠난 남미시장의 공간을 채울 정도로 활발하기 때문이다.

북미 생산기업들은 높은 천연가스 가격 및 원유가격 때문에 올레핀 및 올레핀 유도제품 가동률을 낮춰왔다.

특히, 미국의 높은 에너지 코스트 및 생산감축으로 아시아의 북미 및 남미에 대한 플래스틱 및 화학제품 수출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수출증가는 미국 경기침체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Dow는 아시아 시장구조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본 대비 플래스틱 및 화학제품 수요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요 올레핀 유도제품 수요는 2005년까지 연평균 6-7%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신증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폴리머 공급부족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0년 아시아의 폴리머 부족분은 160만톤 수준이었다.

Dow는 아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시장 중 하나로 보고 진지하게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Dow는 Union Carbide와의 합병을 통해 영역을 아시아로 확장했다.

Dow는 말레이지아나 타이에 신규 크래커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2001년 8월 가동 예정인 Optimal Olefin의 크래커 증설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전망이 아주 밝은 것만은 아니다. 아시아 시장의 장기적 전망과 잠재력을 생각하기 전에 앞으로 2년 동안을 어떻게 극복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이는 수출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1/4에 달하고 있다. 전체 생산능력 이용률은 2001년 1월 8개월만에 55.1%로 바닥을 쳤다.

폴리머 및 플래스틱 수지 수요는 전자제품,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수요는 미국 경기침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미국은 아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22>